

#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Self-efficacy as Perceived by Children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부

강 사 이 송 이\*

College of Human Ec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Lee, Song-Yi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nd the effect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on children's self-efficacy.

The subjects included 293 children from the 4th grade to the 6th grade in two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Inche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Second, the children's self-efficacy varied depending upon the style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 level of recogni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by the children; Third, the children's self-efficacy varied depending upon the style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nd the level of recogni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by the children.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concerning futur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

▲주요어(Key Words) : 부모양육태도(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부모양육행동(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자기효능감(self-efficacy)

### I. 서 론

아동이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요구되는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시기는 학령기이므로 이 시기의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휘할 역할을 예측하고 변화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은 여러 가지 발달을 수행하고 습득할 때 구체적 문제해결 능력과 논리적 조작능력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아동이 목표지향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표지향성과 관련된 행동이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다. Bandura(1977; 1986)는 자기효능감을 아동이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자기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각된 효능성(perceived efficacy)', '자기효능성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belief or expectation of self-efficacy)'라

---

\* 주 저 자 : 이송이 (E-mail : songyilee@empal.com)

고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다른 정의를 살펴보면 윤미애·오윤자(2005)는 자기효능감을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하였으며, 윤운성(2001)은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개인의 신념 중에서 특히 어떤 특별한 과제의 성취능력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평가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고 하였다.

Bandura(1982)는 자기효능감이 행동, 사고유형,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대해서 박영신(2002)은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영향력 있는 변인이기도 하다고 보았고, 차인주(2001)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이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사회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승우·김아영(1998)과 장기묘(2003)는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와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Schunk(1994)는 자기효능감이란 계획된 수준의 학습능력이나 수행기능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으로 아동의 인지 활동과 성취에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아동들은 인지전략과 상위인지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어렵고 힘든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며, 명확한 성취목표를 설정하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보았다.

자기효능감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행동의 방향뿐 아니라 그의 사고 유형 및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는데 관련된 요인을 탐색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의 최초의 자기효능감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때 부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학령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오면서 최근 들어 발달의 생태학적 관점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변인이 부모이기도 하다(이강이, 2002).

부모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로 부모가 자녀의 잠재적 위험을 너무 염려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과보호적 부모는 자녀들의 능력 발달을 손상시키는 반면(Levy, 1948), Mistry(1960)는 부모

의 정서적 보호가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Rosenberg(1973)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 했을 때 자녀들의 자존감 수준은 낮았음을 지적하였다(장기묘, 2003 재인용). 또한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다른 연구의 결과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고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고 부모로부터 적대, 거부를 당한다고 느끼면 자기효능감이 낮다고 하였다(김미애, 2003).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같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특성에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들이 국내 학자들에 의한 끊임없는 연구들(송진숙, 2003; 이영미·민하영, 2004; 장혜선, 2004; 홍연희, 2004; 김수리, 2005; 한승미, 2005)로 입증되어 왔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자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포함한다. 양육태도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내적인 신념이나 가치를 의미하고, 이에 반해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보이는 양식에 내재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외현화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같은 의미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한승미, 2005; 김은하, 2004; 김민정, 2003; 김보선, 2002; 박정근, 2002). 김민정(2003)과 김민정(2004)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여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같은 의미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혼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도와 행동 간의 차이나 일치성에 대한 관계의 연구들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분리하여 보고 두 양육방식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의미있게 고려하여야 하는 양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에 관계가 일관되게 일치하지 않고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의 진행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대한 분석과 그 차이를 일으키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Hartshorne과 May(1928)가 1928년부터 1930년 사이에 수행한 연구에서 아동의 도덕성과 행동 간의 상관인  $r = .30$ 을 넘지 못한다는 보고에서 시작하였고 Dudycha(1936)도 같은 연구를 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Lapiere(1934)는 중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편견을 연구한 결과 태도와 행동 간의 극단적인 불일치를 밝혀내었고 Wicker(1969)가 태도와 행동 간의 문제를 다룬 30여 편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태도는 외현적인 행동과 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Fazio와 Zanna(1978)는 직접적인 행동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태도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행동과 일치하는 상관이 높다는 연구를 보고하면서 태도와 행동 간에 일치성에 대해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윤길근, 1989 재인용). Edward L. (1992)은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태도와 행동에 보이는 효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과 비교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태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동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I.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II-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II-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기효능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III-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

는가?

연구문제 III-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기효능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V.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의 남·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29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97.6%를 보였다. 이 중 불성실하거나 무응답 비율이 높은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272부의 설문을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응답자 특성 분석

분석에 사용된 전체 자료의 응답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아가 48.3%, 여아가 51.7%로 여아가 다소 많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년분포를 살펴보면, 5학년이 5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학년이 23.4%, 6학년이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78.1%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51.7%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이상 졸업자의 경우가 65.3%, 어머니의 경우 대학이상 졸업자는 59.1%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 등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 등이 20.2%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의 수입은 500만 원 이상과 200-249만원이 각각 1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0-199만원이 12.6%를 나타냈다. 가족의 형태는 양친가정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조손가정도 10.0%를 차지하고 있다.

&lt;표 1&gt; 부모와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변인특성									
아동	성별	남 125(48.3%)					여 134(51.7%)				
		4학년 62(23.4%)		5학년 143(54.0)			6학년 60(22.6%)				
	연령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5(1.9)	69(25.4)		106(40.3)		81(30.8)		2(0.8)		
부모	부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0(0)		50(18.6)		210(78.1)		9(3.3)		0(0)	
	모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1(0.4)		137(51.7)		123(46.4)		4(1.5)			
부학력	대학원 이상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무학			
	56(22.0)	110(43.3)	84(33.1)		1(0.4)	2(0.8)		1(0.4)			
모학력	대학원 이상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무학			
	30(12.1)	116(47.0)	97(35.7)		2(0.7)	1(0.4)		1(0.4)			
부직업	무직 (주부)	생산·단순 노무직	생산 감독· 서비스직	자영업	일반 사무직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	전문직	기업주, 간부	기타		
	3(1.1)	1(0.4)	21(8.0)	38(14.5)	9(3.4)	111(42.4)	47(17.9)	16(6.1)	16(6.1)		
모직업	무직 (주부)	생산·단순 노무직	생산 감독·서비 스직	자영업	일반 사무직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	전문직	기업주, 간부	기타		
	111(42.4)	7(2.7)	31(11.8)	13(5.0)	3(1.1)	53(20.2)	17(6.5)	2(0.8)	25(9.5)		
가족 수입	99만 원 이하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249 만원	250-199 만원	300-349 만원	350-399 만원	400-449 만원	450-499 만원	500만 원 이상	
	18(8.4)	23(10.7)	27(12.6)	29(13.6)	23(10.7)	22(10.3)	18(8.4)	13(6.1)	12(5.6)	29(13.6)	
가족 형태	양친가정		편부가정			편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168(62.0)		1(0.4)			3(1.1)		27(10.0)		72(26.6)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부모 양육태도척도, 부모양육행동척도, 자기효능감척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척도와 부모양육행동척도는 각각 세 가지의 하위 유형이 있으며, 이 세 가지 하위 척도들은 각기 내용상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행동에서 서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하위 척도들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즉, 부모양육태도의 권위주의형 양육태도는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거부·제재 양육 행동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부모양육태도의 민주형 양육태도는 부모양육행동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부모양육태도의 맹종형 양육태도는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았다.

#### 1) 부모양육태도척도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기선(1965)의 '아버이 자녀 관계 진단 검사'를 이시형(1997)이 재구성한 도구를 정정호(2000)가 '또래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대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부모양육태도를 권위주의형 7문항, 민주형 10문항, 그리고 맹종형 5문항의 총 22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시형(1997)에 의하면 권위주의형은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 혹은 거부적인 태도로 임하며 모든 일에 있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양육태도로,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체벌이나 잔소리 혹은 욕설을 듣게 되기도 한다. 민주형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고, 그

렇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방임하지도 않는 유형이다. 자녀가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면서 아울러 자녀가 도움을 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자녀에게 표현해 주면서도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의미의 통제를 하는 지도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맹종형은 자녀에 대해 무조건 허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대부분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 자기주장 없이 자녀의 의견을 좇으며, 심지어 자녀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조차도 자녀를 나무라고 지도하기보다는 자녀를 무조건 두둔하는 유형이다.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 문제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정정호, 2000 재인용).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세 하위 척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하위 척도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 하위 척도 중 민주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면 이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형임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권위주의 양육태도가 .79, 민주형 양육태도가 .77, 맹종형 양육태도가 .60으로 부모양육태도의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무리가 없음이 검증되었다.

## 2) 부모양육행동척도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문정(2003)이 박영애(1995)의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척도'를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0 문항의 세 하위 척도로 이루어졌으나 김문정(2003)이 박영애(1995)의 척도를 하위 척도별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 10개씩을 선정하고 이를 재요인분석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총 3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설문은 초등학교 학생임을 고려하여 4단계 척도, 즉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에서 사용된 부모양육행동척도는 문항들이 거부·제재적 양육, 온정·수용적 양육, 허용·방임적 양육의 세 요인으로 나뉜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각 양육행동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하위 척도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세 하위 척도 중 허용·방임적 양육의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면 이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허용적이고 방임적이라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판, 부정적 감정 표현, 적대적·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적 개입의 행위들이 포함된다. 온정·수용

적 양육행동은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아동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그리고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의 부모 행동이 포함된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굴복형 허용과 무책임·무관심형 방임들의 행동들이 포함된다(정선영, 2000). 부모 양육행동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89, 온정·수용 양육 행동이 .88,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84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 3) 자기효능감척도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차정은(1997)이 대학생을 위하여 개발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척도를 한혜진(2002)이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표현으로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의 세 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자신감은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의 심리적 상태를 검사하고, 자기조절효능감은 일의 순서적인 처리능력과정 정보 활용능력을 검사하며, 과제난이도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태도를 검사한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등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mbach's- $\alpha$  값은 하위요인별로 자신감이 .78, 자기조절효능감이 .85, 과제난이도가 .73으로 만족할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 4. 자료 수집 절차 및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EXCEL과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우선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분석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 자기효능감과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간의 통계적 인과관계에 관한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권위주의형 양육태도는 거부·제재 양육행동( $r=.72, p<.001$ ), 허용·방임 양육행동( $r=.25, p<.001$ )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온정·수용 양육행동( $r=-.21, p<.001$ )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높게 나타나고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비례하여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민주형 양육태도는 거부·제재 양육행동( $r=-.50, p<.001$ )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온정·수용 양육행동( $r=.64, p<.001$ )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민주형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비례하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민주형 양육태도와 허용·방임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맹종형 양육태도는 거부·제재행동( $r=.18, p<.01$ ), 온정·수용 양육행동( $r=.17, p<.01$ ), 허용·방임 양육행동( $r=.60, p<.001$ )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종형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거부·제재 양육행동, 온정·수용 양육행동, 허용·방임 양육행동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맹종형이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의 상관계수는 각각 .18, .17로 .20이 안되는 것으로 비교적 낮게 나왔고, 허용은 .6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맹종형은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분석 및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자신감은 권위주의형 양육태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43, p<.001$ ), 민주형 양육태도와는 정의 상관관계( $r=.18, p<.01$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조절효능감은 권위주의형 양육태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30, p<.001$ ), 민주형 양육태도와는 정의 상관관계( $r=.42, p<.01$ )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난이도는 민주형 양육태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32, p<.001$ ), 권위주의형 양육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세 하부요인파 맹종형 양육태도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권위주의형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며, 민주형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거부·제재 양육행동	온정·수용 양육행동	허용·방임 양육행동
권위주의형 양육태도	.72***	-.21***	.25***
민주형 양육태도	-.50***	.64***	-.10
맹종형 양육태도	.18**	.17**	.60***

\* $p<.05$ , \*\* $p<.01$ , \*\*\* $p<.001$

<표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요인과의 상관관계

	권위주의형 양육태도	민주형 양육태도	맹종형 양육태도
자신감	-.43***	.18**	-.12
자기조절 효능감	-.30***	.42***	-.02
과제난이도	-.10	.32***	.06

\* $p<.05$ , \*\* $p<.01$ , \*\*\* $p<.001$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별로 백분위 상위 30%, 하위 30%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별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t-test를 실시한 결과 권위주의형( $t=4.32, p<0.01$ )과 민주형( $t=6.31, p<0.01$ )의 양육태도의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맹종형의 양육태도의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자기효능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의 민주주의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이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이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분석 및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거부·제재행동( $r=-.39, p<.001$ )과 허용·방임 양육행동( $r=-.15, p<.05$ )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 수용 양육행동( $r=.14, p<.05$ )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효능감 역시 허용·방임 행동( $r=-.14, p<.05$ )과

거부·제재 양육행동( $r=-.35, p<.001$ )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온정·수용 양육행동( $r=.34, p<.001$ )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제난이도는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28, p<.001$ ), 거부·제재 행동과 허용·방임 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부모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또한 비례하여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별로 백분위 상위 30%, 하위 30%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부모의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별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t-test를 실시한 결과 거부·제재 행동( $t=6.15, p<.001$ ), 온정·수용 행동( $t=6.09, p<.001$ ), 허용·방임 행동( $t=-3.24, p<.05$ ) 양육행동의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한 집단이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한 집단이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또한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한 집단이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보여준다.

<표 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차이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구분	Mean	S · D	t
권위주의형 양육태도	상	2.13	.51	-4.32***
	하	2.42	.40	
민주형 양육태도	상	2.47	.40	6.31***
	하	2.06	.45	
맹종형 양육태도	상	2.28	.48	.25
	하	2.67	.43	

\* $p<0.05$ , \*\* $p<0.01$ , \*\*\* $p<0.001$

<표 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요인과의 상관관계

	거부·제재 양육행동	온정·수용 양육행동	허용·방임 양육행동
자신감	-.39***	.14*	-.15*
자기조절효능감	-.35***	.34***	-.14*
과제난이도	-.11	.28***	-.04

\* $p<0.05$ , \*\* $p<0.01$ , \*\*\* $p<0.001$

<표 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차이분석

부모의 양육행동	구분	Mean	S·D	t
거부·제재 양육행동	상	2.08	.44	-6.15***
	하	2.45	.36	
온정·수용 양육행동	상	2.49	.41	6.09***
	하	2.11	.44	
허용·방임 양육행동	상	2.14	.42	-3.24*
	하	2.35	.44	

\*p<0.05, \*\*p<0.01, \*\*\*p<0.001

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강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우선 회귀모형식은 F값이 23.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였으며, 권위주의형 양육태도와 민주형 양육태도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도는 민주형 양육태도가 .4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권위주의형

양육태도는 -.12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모형식은 F값이 20.1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였으며,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Beta 값을 이용하여 부모 양육행동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31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20으로 부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표 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Beta	
권위주의형 양육태도	.09	.05	-.12	-1.99*
민주형 양육태도	.38	.06	.41	6.79***
맹종형 양육태도	-.01	.04	-.01	-.11
R2=.21      Adjusted R2=.20      F=23.33				

\*p<0.05, \*\*p<0.01, \*\*\*p<0.001

<표 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Beta	
거부·제재 양육행동	-.13	.04	-.20	-3.22*
온정·수용 양육행동	.26	.05	.31	5.39***
허용·방임 양육행동	-.07	.05	-.08	-1.40
R2=.18      Adjusted R2=.18      F=20.14				

\*p<0.05, \*\*p<0.01, \*\*\*p<0.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권위주의적, 민주적, 맹종적인 양육태도와 거부·제재적, 온정·수용적,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양육 방식들이 자기효능감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와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행동,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자료를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허용·방임 양육행동,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주의적 태도가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같은 맥락에 있는 거부·제재적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예측하기가 쉬운 부분이었으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부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로 임한다고 지각할 때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지나치게 들어주거나 무관심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형으로 지각할 때 부모의 행동을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부모의 행동을 거부적이거나 제재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규율을 가지고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가 아동을 사랑한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맹종형일 때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행동,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행동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거부·제재 양육행동의 상관계수는 각각 .17, .18로 .20이 안되는 것으로 비교적 낮게 나왔고,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행동은 .6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맹종형은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동이 자기 스스로에게 부과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중 특히 아동의 자신감 상실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한승미(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의 정도에 따라서도 아동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아동들이 낮게 지각한 아동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보여주고,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아동들이 낮게 지각한 아동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충분한 정도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아동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에서 모두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주었고 반면에 부모가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의 집단이 낮게 지각하는 아동의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부모의 양육행동의 유형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각되는 수준이나 정도도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아동이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민정(2003)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지각한 집단은 적게 지각한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서도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부적이고 제재적일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정서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류순화, 2001; 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 박영애·최은경, 2001)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면서 좀 더 발전적 연구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 대상이 경제사회적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볼 때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해서는 좀 더 대표적인 연구대상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해 보고, 다양한 연구대상의 경제사회적 수준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의 정확성을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좀 더 뚜렷이 구분해 줄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신념이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부모의 양육행동도 부모가 보이는 양육방식 중 태도를 완전히 구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태도와 행동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질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 중 어느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심리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변인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은 차후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태도와 행동의 일치를 위한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겠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12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4월 24일

#### 【참 고 문 헌】

- 김미애(2003).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4).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선(2002). 지각된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리(2005).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하(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류순화(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2002). 집단미술활동이 저소득층 문제아동의 자기 개념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애 · 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238.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2000).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39-51.
- 박정근(200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숙(2003).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영유아보육학*, 35, 143-161.
- 윤미애 · 오윤자(2005).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4(1), 115-129.
- 이강이(2002).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65-76.
- 이영미 · 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경향. *대한가정학회지*, 4(4), 1-10.
- 윤길근(1989). 태도내변산과 태도의 행동에언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운성(2001). 자기효능감을 통한 건강한 행동변화. *사회과학논집*, 4, 187-210
- 장기묘(2003).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습양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2000)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선(2004).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호(2000).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승우 · 김아영(1998). 초등학교 아동의 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7, 71-88.
- 차인주(2001).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승미(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진(2002). 자기주장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연희(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Dudycha(1936), G. J.(1936). An objective study of punctuality in relations to personality and achievement. *Archives of Psychology*, 204, 1-319.
- Hartshorne, H., & May, M.A.(1928). *Studies in the nature of character*. Vol. 1. Studies in deceit. New York : Macmillan.
- Lapiere, R.(1934). Attitude vs action. *Social Forces*, 13, 230-237.
- Pizzini, Edward L.(1992). The Effect of a Problem Solving In-Service on the Classroom Behaviors and Attitudes of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9, 649-673.
- Schunk, D. H.(1994). Goal and self-evaluative influences during children's mathematical skill acquisi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Washington, DC.
- Wicker, A. W.(1969). Attitude vs. Action :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s to attitude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 25, 41-78.